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The 21st Century Way of Learning

2012 신입입생 모집 입학문의 02-944-5000



SCU 미디어센터 대형스튜디오



중형스튜디오 4



중형스튜디오 부조정실



중형스튜디오 3



소형스튜디오 7



대형스튜디오 부조정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ISSN 2005-2049



9 772005 204905

SCU e야기

Vol. 17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CYBER WORLD 인터넷 속의 전시장, 사이버 전시회

SCU TODAY 2012 SCU Spring Festival

PEOPLE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

SPECIAL ISSUE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 문화예술경영학과

SCU PARTNER SCU & 서울특별시청

2012 DT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제11회 신일스승상 영광의 주인공들과 신일스승상위원회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제자들이 겁에 질려 허둥대는 모습이라면, 예수는 안타까움의 표정이다. 제자들은 무서운 폭풍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본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원인을 믿음으로 결론지으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움의 원인을 주변의 상황으로 생각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 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들, 우리가 얼마나 피하고 싶은 것들인가. 그러나 이런 폭풍들은 마치 소나기처럼 급작스럽게 몰아닥쳐 쏟아진다. 그런 것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어그러지고 만다. 생각지 못했던 급성 질환의 발견, 급작스런 건강 악화, 불안정한 직장 안에서의 위치,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 가정관계의 단절 등을 비롯하여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인생의 고난, 실패와 좌절 등 무수한 폭풍들과 만난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그 폭풍이 심술궂은 구름, 세찬 바람, 게다가 성난 파도까지 동반해 우리에게로 밀려온다. 우리는 영락없이 '난파선 선원'이 되고 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냥 하늘을 바라보며 이 풍랑이 언제 멈출 것인가, 바람이 언제 그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돛과 닻을 정비하고, 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인간힘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싸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로 고백될 때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게 될 참다운 안식을 맞을 수 있으리라. 



박한결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교육대학원(M.Edu.)
(현) 온서울교회 교육목사
(현) 신일중고등학교 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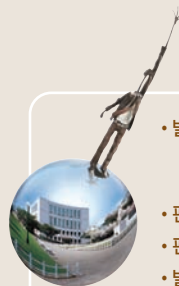
SCU e야기 Vol. 17

CONTENTS

- 02 BIBLE STORY |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③
- 04 PHOTO & STORY | 제11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 06 CYBER WORLD | 인터넷 속의 전시장, 사이버 전시회
- 08 SCU TODAY | 교수와 학우들이 함께한 2012 SCU Spring Festival
- 10 PEOPLE · 여기 e사람 | 한서문화협회 이세웅 회장
| 교육과학기술부 이라닝과 조선학 과장
| 김희철 · 이형건 동문
- 16 PEOPLE · 사제지정 |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 & 최종찬 · 김영미 · 최보돈 · 김정화
- 18 SCU MENTORING | 가족상담학과 현미옥(멘토) &
유정미 · 김병준 · 이상열 · 장은주 · 허승무(멘티)
- 20 PLUS WE | 학습수기 우수자가 말하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
- 22 EDU INFO |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젠더연구소의 Anita Nyberg 교수
- 23 CLICK! SCU | 무지개예술단, 서울사이버대학교 최초의 연극동아리



- 24 SPECIAL ISSUE |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 문화예술경영학과
- 26 SCU PARTNER | SCU & 서울특별시청
- 30 SCU LIFE | 문화 · 공연 · 사이버예절 · 독자퀴즈 · 교수추천도서
SCU 200% 활용하기 시리즈 1
- 31 SCU NETWORK | 2012 뿌쉬킨 페스티벌 기념 연주회 성황 외
- 33 SCU NETWORK | 교수동정
- 34 NEW CHALLENGE SCU | 하반기 신 · 편집생 모집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승,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 발 행 일 2012년 7월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디플랜네트워크 (02)518-3430



제11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우리 시대의 참 가르침을 전하다

사명감으로 일구어 온 참된 교육 마음으로 남은 '스승' 이라는 한마디

요즘 우리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무겁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고 했던 스승에 대한 존경의 미덕은 어느새 과거형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 같은 제자 사랑으로 진정한 참 스승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2012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11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자리에는 우리 시대 일곱 명의 참 스승이 모였다.

글 | 편집부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머무르게 되는 장소가 있다. 바로 학교다. 비단 학교가 아니라도 인간은 어떤 방면에서든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스승'의 존재는 귀하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서 스승의 권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만 해도 서울 920명, 경기 563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4.7%나 늘었다. 그 배경에는 '교권추락'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이후 교권 침해사례가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제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들도 여전히 많다.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故 이봉수 이사장의 뜻을 기려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신일스승상 시상식은 우리 시대 참 스승의 표상을 기리는 대표적인 행사다. 신일스승상은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초·중·고 평교사들의 숨은 공로를 발굴해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제정되었다. 2012년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5월 12일, 서울 미아동 신일캠퍼스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열린 제11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에 일곱 명의 교사들이 수상자로 초대되었다.

일곱 명의 수상자는 활발한 교육활동으로 학습지도 우수교사상을 수상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88.33%를 달성시킨 정년을 앞둔 교육계의 산증인 여주오산초등학교 전호규 교사,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친 무지개 주말학교 개설 및 다문화이해 교육 활성화에 헌신한 부천남초등학교 김갑성 교사, 진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커리어 코치’ 등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에 전념한 구룡중학교 양금선 교사, 과학교육 진흥 프로그램 창설 등 과학 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상문고등학교 남준희 교사, 중도 탈락자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 헌신한 학생 생활을 지도해 온 경기의정부고등학교 이상곤 교사, 25년 간 전문계고등학교에 재직하며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박미연 교사, 특수교육현장에서 자폐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정신지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한 성베드로학교 이금영 교사 등이다.

제11회 신일스승상 수상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수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신일스승상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과정과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 1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故 이봉수 이사장의 뜻을 기려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신일스승상 시상식은 우리 시대 참 스승의 표상을 기리는 대표적인 행사다.
- 2 신일스승상 시상식에서 故 이봉수 이사장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 3 신일스승상 영광의 주인공들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올해의 신일스승상 수상자들이 신일스승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미연, 양금선, 김갑성, 뒷줄 왼쪽부터 남준희, 이상곤, 이금영, 전호규 교사)



제11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에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숨은 공로를 찾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신일스승상이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았다.



본관전체

본관1층

본관2층

본관3층

본관4층

본관5층

본관B1층

- | | | | |
|----------------|--------------------|--------------------|----------------------|
| • 1층 복도 | • 1층 B-104 강의실(=형) | • 1층 B-105 강의실(원형) | • 2층 복도 |
| • 2층 B-202 강의실 | • 2층 B-203 강의실 | • 2층 B-204 강의실 | • 2층 B-205 강의실 (타원형) |
| • 부총장실 | • 차이크프스키홀 | • 501 강의실 | • 502 강의실 |
| • 504동 강의실 | • 체력단련실 | • 지하 1층 복도 | |

COPYRIGHT(C) SEOUL CYBER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SCU 온라인 캠퍼스투어 VR |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로 구축한 '온라인 캠퍼스 투어(Online Campus Tou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속의 전시장, 사이버 전시회

시간과 공간, 국경 초월한 전시

실제 그 이상의 감동 선사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상현실 기술은 우리가 가보기 힘든 외국의 전시회나 공연을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이버 상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통틀어 칭하는 이름이 바로 사이버 전시회다. 실제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사이버 전시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미래의 사이버 전시는 어떻게 발전할까?

글 | 편집부

사이버 전시는 인터넷상에 가상공간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전시장을 방문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사이버 전시에 대한 아이디어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상되어 왔다.

사이버 전시가 본격화 된 것은 초고속인터넷이 설치되고 컴퓨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부터다. 사이버 전시는 보통 고해상도의 사진이 필요한데 과거의 전송속도로 고해상도의 사진을 전송하기에는 인터넷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홈페이지 형태로 전시장과 작품의 일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정도였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부 지도와 사진을 이용해 전시장을 둘러보는 듯한 기술도 나왔다. 최근엔 사진을 360도로 연결해 마치 그 자리에서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꾸민 기술도 등장했다. 이 기술의 한 예가 인터넷 포털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지도 구글 스트리트뷰, 다음 로드뷰 같은 것들이다.

점점 늘어나는 사이버 전시회

사이버 전시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전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시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사이버 전시를 제공하는 목적은 실제 전시회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전시를 접한 사람은 실제 전시회 방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가상과 실재를 결합하여 그 경험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전시가 직접 방문으로 연결되고, 그에 따른 감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되는 작품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몇몇 전시관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안내를 하기도 한다. 3D 게임처럼 전시관 내부를 표현해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박물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부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3D Virtual Art Gallery같은 앱처럼 실제 공간 없이 가상공간으로만 운영되는 사이버 미술관도 있다. 단지 사이버 전시회는 전시되고 있는 작품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과 전시회의 콘셉트를 잘 살려야 하는 것이 포인트다. 때문에 디자인적 감각과 함께 멀티미디어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 전시회는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앱 제작에 있어 더욱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 그대로 옮기는 가상현실 기술 발전

최근의 기술 발달은 가상현실의 발달로도 이어졌다. 예전의 그래픽 기술로는 현실과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내기 힘들었다. 이제는 그래픽 기술의 발전과 입체영상 기술, 가상 감각 재생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거의 같은 가상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

영국에서 개발 중인 버추얼코쿤은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향기와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기술이다. 심지어 위성을 통해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 한국에서도 가상 감각 재생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사이버 전시회처럼 단순히 작품 사진을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 어디에 있어도 루브르박물관을 구경하거나 브로드웨이의 공연을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공연장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관객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는 수익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1 연구동 1층 복도
2 연구동 8층 조형물
3 본관 1층 로비

교수와 학우들이 함께 한 2012 SCU Spring Festival

사이버와 현실의 경계를 넘다 사랑과 열정, 배려가 넘치는 축제의 공간

수준 높은 오프라인 행사가 많기로 유명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지난 5월 19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2012 SCU Spring Festival이 열렸다. 스승의 날 교수와 학우들이 함께하는 2012 SCU Spring Festival은 500명 이상의 학우가 참석해 오프라인 대학 못지않은 재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과 학생 간의 사랑, 열정, 배려가 넘치는 축제의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자.

글 | 편집부

Let's Go Together

지역홍보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일석이조 알뜰바자회

서울사이버대학의 바자회는 여타 대학의 천편일률 현장과는 차별화된 개성있는 장터였다. 특히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판매 부스는 성황을 이뤘다. 부동산학과와 가리비찜과 아나고회를 안주로 내세운 보건행정학과의 세계맥주 전문 부스를 비롯해 사회복지학과와 망개떡 부스 같은 독특한 아이템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주지역의 천혜향과 한라산 소주 부스, 강원 영서지역의 감자떡, 닭갈비, 감자만두 부스 등 사이버대만의 공간을 초월한 전국의 이색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다. 가격이 비쌀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 순수한 대학 축제답게 가격이 저렴하여 부담 없었다는 것이 참가 학우들의 소감이다. 판매보다 맛



있는 음식을 학우들과 나누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위주의 축제가 아닌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전 서사인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알뜰바자회의 수익금 일부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축제는 끝나도 학우를 위한 서사인의 마음 씬씬이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감사와 감동의 하모니

비교 불가의 문화예술 공연과 스승의 날 감사 행사

이번 축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만큼 스승의 날 감사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사이버대학 차이크프스키홀에서 열

- 1 특독 뒤는 보건행정학과 부스의 모습. 보건행정학과는 여름을 맞이해 생맥주를 판매하고, 노래방 사용은 무료로 하였다.
- 2 서울사이버대학의 바자회는 여타 대학의 천편일률 현장과는 차별화된 개성있는 장터였다.
- 3 문화예술 공연은 과별로 연극, 마임 등의 실력을 뽐냈다. 현장에 있었던 참가 학우들은 “마치 실제 프로공연을 보러 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 4 대상을 받은 연극동아리 ‘무지개 예술단’의 모습. 연극 [효성스러운 호랑이]는 주제의식부터 작품성, 완성도가 매우 높아 큰 감동을 전달하였다.



놓치면 섭섭한 SCU Spring Festival 행사 배려 소식

■ 예비 입학자를 위한 캠퍼스 투어! 캠퍼스에 놀러 오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2012 SCU Spring Festival 당시 오픈 캠퍼스 투어를 함께 진행했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투어를 통해 예비 입학자는 학교 분위기도 익히고, 다른 사이버대학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 지방 거주자, 축제참여 부담 덜어 드립니다~

축제 참여가 부담스러운 지방 학우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강원, 영남, 충청, 호남지역은 학우 10인 이상 단체 참석 시 차량 렌트비 20만 원 이상, 제주지역은 1인당 5만원씩을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또한, 장애 학우를 위하여 학교 정문과 행사장 출입구에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 서사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린 감사행사는 제자가 교수들께 직접 카네이션 바구니를 전달해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모니터를 통해 일방적인 교육을 받는 타 사이버대학교와 달리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많은 만큼 더욱 각별한 사제의 정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늦은 나이에 새로 배움을 시작한 직장인 학우들이 많은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 몽클한 시간이었다.

이후 열린 문화예술 공연은 과별로 연극, 마임 등의 실력을 뽐냈다. 현장에 있었던 참가 학우들은 “마치 실제 프로공연을 보러 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학우들이 노력하여 준비한 무대인 만큼 감동은 그 이상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우수 팀에게는 대상 50만 원을 비롯하여 총 1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화합의 한마당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친목의 장

축제의 뜨거운 열기는 학과 사은행사를 겸한 뒤풀이로 이어졌다. SCU Spring Festival은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 온라인으로 맺어온 친분을 오프라인에서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멀리 지방에서 온 학우들도 늦은 시간까지 축제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친 2012 SCU Spring Festival은 서울사이버대 학우들이 그간 숨겨온 끼를 발산하고, 친분을 돈독하게 다지는 자리였다. 축제를 통한 장학금 혜택까지 풍성한 축제!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독특한 축제문화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

한서문화협회 이세웅 회장 스웨덴 국왕 오찬
한국·스웨덴 문화 예술 나눔으로
문화의식 고양 및 양국 교류 확대



한서문화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학교법인 신일학원)은 최근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에게 영원한 우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세웅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 중이던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내외를 초대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영 오찬을 가지고, 양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국왕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글 | 편집부

더욱 단단한 한국-스웨덴 관계를 위한 다이아몬드 기념패

이세웅 한서문화협회 회장(이하 이세웅 이사장)은 “문화 예술을 통한 우의와 협력을 이끌어 온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더욱더 단단한 양국 관계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는 이에 “양국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 전달에 앞서 이세웅 이사장은 연설을 통해 스웨덴 국왕 내외의 방한을 환영하고, 국립의료원 건립 등 국내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또한 재치 있는 농담으로 오찬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했다. 스웨덴 국왕은 답사를 통해 그간 수많은 교류활동에 앞서온 한서문화협회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스웨덴 교환학생 활성화 위한 장학금 제도 확충 등 양국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바람을 표했다.

칼 구스타프 국왕과 실비아 왕비의 한국방문은 지난 1959년 양국수교 이후 처음이다. 스웨덴 국왕 내외는 3박 4일간의 바쁜 한국방문 일정 중에도 이세웅 이사장이 주최한 환영오찬에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정원식 전 국무총리,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오명 KAIST 이사장,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오지철·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최태지 국립발레단장, 박인자 발레협회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악가 이규도 교수, 이우근 법무법인 충청대표변호사, 한철수 한미우호협회회장, 박무중 The Korea Times 사장,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등 양국 외교관과 국내외 문화예술 및 교육계 VIP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실비아 왕비의 노인복지 사랑, 한국의 노인복지에 큰 관심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실비아 왕비는 한국의 노인복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스웨덴에서는 1996년부터 왕비의 이름을 딴 왕립치매연구소 ‘실비아의 집’을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노인복지 가운데 특히 노인치매에 큰 관심을 보인 실비아 왕비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노인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도 필요하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세웅 이사장의 교육관에 따라 사이버대학 최초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노인복지학과가 설립됐으며,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세웅 이사장은 스웨덴뿐 아니라 한국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지난 6월 ‘2012 뿌쉬킨 페스티벌-한국과 러시아 문화교류 한마당’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하기도 했다. 

한서문화협회

이세웅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서문화협회는 2002년 한국-스웨덴의 문화, 교육, 학술 교류를 통해 양국간 이해와 유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이 승인한 비영리법인으로 주로 양국간 인사교류, 문화, 교육, 학술기관 간 협력 및 교류 사업, 양국관계 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서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세웅 회장은 세계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으며, 글로벌 경영전략의 전문가이자 교육자다. 저서로는 『글로벌경영과 전략』, 『러시아 투자환경론』, 『국제경영론-전략적관리』 등이 있다.



- 1 한서문화협회 이세웅 회장(우측)이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에게 한국과 스웨덴의 영원히 변치 않을 우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 2 이세웅 이사장은 국빈 방한 중이던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내외를 초대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영 오찬을 가졌다.
- 3 이세웅 이사장의 환영사
- 4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씨의 기념연주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조선학 과장

아세안 사이버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최상의 파트너로 '성공' 견인



1

아세안의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교육협력사업인 아세안 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이하 ACU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올해 3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ACU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조선학 과장을 만났다.

글 | 편집부

동남아시아지역의 고등교육 활성화 대책

지난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옹케용 사무총장이 한국 측에 이러닝을 통한 동남아시아지역의 고등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이버대학 설립을 요청했다. 이를 우리 정부가 수락하면서 ACU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2015년에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대학으로서의 아세안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적 지원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2011년부터 IT 인프라가 낙후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 국가의 우수대학을 각각 한 곳 선정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러닝 센터와 이들 국가 간 학점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허브센터를 베트남에 구축해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선학 과장은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관대학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 프로젝트의 주축 역할을 맡으며 학점교류 시스템 개발·교육콘텐츠 제작, 그리고 허브센터 원격지원 및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까지 단계별로 사업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장은 지난 3월 22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차

ACU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운영위원회에는 1차 사업의 주요대상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 국가의 정부 내 유관부처 대표와 참여대학 실무책임자, 아세안으로부터 이번 사업의 교섭창구로 지정된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의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대표해 조선학과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권구순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주관을 통해 국가별 입장을 조율하며 ACU 프로젝트의 정책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해당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요. 초대위원장으로서는 사업초기에 추진력을 발휘해 목표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아세안측에 리더 자리를 이양할 생각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인프라, 감동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 교육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대학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역량 있는 사업인력 풀’ 등을 고루 갖춘 대학임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지난 5월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조선학과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신 시설을 갖춘 인프라가 인상 깊었다”고 전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닝은 향후 대학교육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비록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우수콘텐츠 제작과 참여적 수업모델 활성화 등 효과적인 이러닝 프로그램의 개발에 매진한다면 머지않아 오프라인대학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리라 확신합니다.”

1 제1차 ACU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선학 과장.

2 조선학 과장은 “세상을 가치있게 만드는 교육을 추구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닝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 이 사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을 전했다.



(주)희망 만드는 사람들 김희철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재학)

바야흐로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물질에 대한 기득권층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김희철 대표가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요컨대, 금융탐욕주의를 ‘금융 인본주의’로 바꾸고 싶다는 것, 돈의 지배로부터 이 사회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다.

글 | 편집부

‘나눔 문화’ 정착 위해 SCU 기반으로 최선 다할 것



김희철 학우는 ‘복지와 경제가 공존하는 구조가 곧 미래형 사회’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사회복지학은 이제 금융권 관계자들의 필수 덕목이라 덧붙였다.

국내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을 거쳐 대구은행 부행장까지 지낸 바 있는 김희철 학우가 새삼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권 종사자의 권유로 ‘금융노년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이 그 결정적인 계기였다. 다소 생소하게만 여겨졌던 노년학이라는 학문을 심도 있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문제로까지 눈을 뜨게 된 것이었다.

“제가 평생 다루어 온 금융지식과 사회복지 분야를 적절히 접목 시켜서 공부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한 은퇴 설계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재무관리를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고령화 속도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최대의 화두라 봅니다.”

김희철 학우는 우연찮게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진학을 결심, 올해 초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생이 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원과의 인연은 지금 생각해 봐도 운명이었어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 다른 일로 찾아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서울사이버대학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늘에서 꼭 제 마음을 알고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았어요. 행운이었죠.”

김희철 학우가 지난 5월부터, 금융구제전문기관 「(주)희망 만드는 사람들」에 몸담기 시작한 것 역시 학업의 연장이자 실천의 일환이었다. 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력가들만 상대하며 자산설계를 책임졌던 그가, 소위 금융노예로 낙인찍혀 사회활동의 출구가 전부 막혀버린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이 인생에서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이 이를 구체화시켰죠. 수업이요? 너무 재미있어요. 교수님들도 상당히 열정적이시고, 도무지 재미를 피울 수가 없다니깐요(웃음). 여느 온라인 대학교들과 달리 오프라인 시스템도 매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화상세미나 등 쌍방소통의 시간이 더욱 자주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회봉사를 위해 김희철 학우는 실제로 한 달에 한두 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소속 색소폰 연주자로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불우이웃돕기바자회 현장을 찾는다고. “제 소소한 취미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김희철 학우가 보여줄 ‘사람 중심의 금융’, 그 미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곤궁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대가족의 생활고를 동반 책임져야 했던 이형건 동문의 학창시절은 양보와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교사였던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5형제 모두를 대학에 보낼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하는 수 없이 이형건 동문은 공업고등학교로 진로를 선택, 일찌감치 직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세상살이가 녹록치는 않았어요. 지난 1997년도엔, 신원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극심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꽤 오랫동안 감당해야 했죠. 다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대학 공부에 대한 갈증을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었던 이형건 동문은 치열한 주경야독 끝에 2001년, 비로소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고교 졸업 29년 만에 이룩한 꿈이었다. 이형건 동문은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벅차올랐던 당시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슬며시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이형건 동문은 그간 참아왔던 학구열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기도 하듯 사회복지사 2급·보육교사 1급·평생교육사 2급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였다.

“여타 온라인대학교들과 다르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독자적인 캠퍼스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어,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 마지않던 학사모를 쓰게 된 이형건 학우는 같은 해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진학하는 과감한 결심을 했다.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업에만 전념하기 위해 퇴직을 감행, 법학 전공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초,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울산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헌대법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고, 요즘 교안 작성으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학에 사회복지학을 접목,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자 노력 중이죠. 아, 상상만 해도 설레서 간혹 밤잠이 다 안 온답니다(웃음). 환갑에 제가 강단에 서게 되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인생은 참, 예측불가해서 아름다운 듯해요!”

드라마 같은 고군분투의 인생역정이 화제가 되어 결혼식 주례 부탁도 적잖이 받고 있다는 이형건 동문은 힘주어 말한다. “공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때’가 곧 적기”라고. 그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학 강단에 선 만학도 이형건 동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5년 졸업)

논어를 통해 공자가 이르길,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면 不亦說乎(불역열호)’라 하였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으로, 이는 이형건 동문의 인생철학과도 같다. 초로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꾸준히 수학에 매진할 수 있는 것 역시 그 때문. 그리하여 이형건 동문은 오늘날,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글 | 편집부

꿈 이뤄준 바탕은 ‘용기’ SCU에서 더 큰 날개 찾아



‘배운 것을 머릿속에 담으면 지식이요, 가슴속에 담으면 지성이다’라고 믿는다는 이형건 동문은 후학 양성을 위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에 관심 있다면 누구든 OK

금융권에서의 건강한 도약 꿈꾸다

스승
서영수 교수(금융보험학과)

- 제자
- 최보돈 금융보험학과 3학년
 - 김정화 금융보험학과 4학년
 - 김영미 금융보험학과 졸업생
 - 최종찬 금융보험학과 졸업생

금융보험학과 동아리 '리크(LIIC: Luxury Intelligent Investment Club)'는 지난 2008년, 학과 친목 도모 및 효율적인 스터디를 위해 결성되었다. 교수진을 제외한 구성원들만 해도 전부 35여명, 재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들까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유일의 금융전문모임이다.

글 | 편집부



서영수 교수(금융보험학과)

순수한 열정 하나로 굳게 맺어진 그들

최종찬 2011년도 졸업생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선후배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자 창단된 저희 동아리가 어느덧 햇수로 5년이 되었네요. 큰 잡음 없이 오늘날까지 동아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교수님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

서영수 교수 모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학교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현장감을 기를 수 있는 금융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유사 성격의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김영미 2009년도 졸업생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금융계 상황을 꼼꼼히 분석 및 전망할 수

있는 모임인 터라, 저 또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근무하고는 있지만,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금세 도태되기 십상이거든요.

최보돈 3학년 재학생 동아리에 가입하기 전까지 저는 사실, 금융의 거자도 모르던 상태였어요. 금융보험학과로의 진학도 막연한 기대에 결정했던 것이라, 관련 지식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아리에 가담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각과 판단력이 생겼거든요.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까지 넓어졌죠.

김정화 4학년 재학생 공감해요.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던 제가 동아리를 통해 주식 사이클을 읽기 시작했으니까요. 증시에 대한 파악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쫓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 예술 등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사고들이 유기적으로 얹혀 있다는 이치를 바로 '리크'가 알려주었죠.

서영수 교수 지금처럼만 해주면 정화씨는 분명 괜찮은 금융전문가가 될 수 있을거예요. 자신감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응원 할게요.

김정화 4학년 재학생 리크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을 비롯해 유능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서 든든합니다(웃음). 특히, 서영수 교수님의 지속적인 배려와 독려는 저처럼 기초가 빈약한 학생들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보돈 3학년 재학생 맞아요. 늘 '필요하면 연락해라', '힘든 점 없냐', '도외줄 일은 없냐' 물으시며 열성적으로 저희들을 챙겨주시죠. 꼭 아버지같이 모임 위한 강의실 확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김영미 2009년도 졸업생 동아리 멤버들의 장점 및 약점 등 특성을 하나하나 외우고 계산 정도로 리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이세요. 저희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리크가 존재하는 한 교수님께서도 항상 저희 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화 재학생(4학년)

초심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 것

서영수 교수 나야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까지나 최선을 다해 리크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고 보니 리크도 4년여 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네요.

최종찬 2011년도 졸업생 네, 초창기에 비해 다루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채권, 원자재, 금리 등을 넘어 이젠 정치나 사회 부문에 관한 이슈들까지 두루 섭렵 중이니까요. 그만큼 멤버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최보돈 3학년 재학생 하지만 개개인의 격차는 아직까지 상당한 듯해요. 리크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단계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수 교수 나도 보든씨 의견에 찬성해요.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를 파트별로 더 세세하게 나누어 전문성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그룹화를 통해 리크의 체계를 한층 단단히 하자는 거죠. 무엇보다 동아리의 생명이 오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리크의 탄생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인지하고, 멤버들 간에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김영미 2009년도 졸업생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교수님. 실제로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만을 위해 가입 하셔서 동아리 분위기를 흐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저희 리크는 화합과 학업을 위한 모임이지, 투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데 말이에요. 앞으로 회원모집에 있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수 교수 영미씨는 현재도 충분히 리크에서 좋은 역량 보여주고 있으니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외국어 능력을 더 키우길 바라요. 레벨 상승이 가능한 기회는 스스로만 들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참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님들한테 당부의 말 좀 건네도 될까요?

일동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서영수 교수 리크의 회장 보든 씨,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우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세요.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나 멤버들에게 알려서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요. 정화 씨는 좀 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리크의 핵심 중찬 씨! 올 9월에 실시되는 자산운용사자격시험 준비는 잘 돼가나요?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었어요? 언제든 찾아와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반드시 합격해야죠!

최종찬 2011년도 졸업생 당장 상의 드릴게요. 교수님 저희 리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해요! 📄



최보돈 재학생(3학년)



김영미 졸업생(2009)



최종찬 졸업생(2011)

가족상담학과 멘토링 그룹 '옥패밀리'

하늘이 맺어준 인연, 영원히 놓지 않을 거예요!

멘토를 향한 멘티들의 사랑이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오죽하면 그룹명도 멘토의 이름을 따 '옥패밀리' 다. 공식적인 멘티 수만 총 21명. 실제로는 가족상담학과 구성원 대개가 현미옥 멘토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대체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일까? 유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그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자신이 있다고 확인하는 '옥패밀리'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순서대로 허송무, 이상열, 김병준, 현미옥(멘토), 유정미, 장은주)

퇴근 직후인 터라 다소 피곤할 법도 한데, ‘옥패밀리’ 멤버들은 소문대로 활기가 넘쳤다. 만나자마자 환호성에 열싸안기까지, 꼭 오래전에 소식 끊긴 동창이라도 마주친 듯했다. 서로가 곁에 있어서 더없이 든든하다는 솔직한 고백에 새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시간,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의 어느 날이었다.

받은 은혜 그만큼 돌려주는 것일 뿐

유정미 | 어머, 멘토님! 얼굴이 훌쩍해지신 것 같아요.

장은주 | 그러실 만도 하죠. 가정 살림에, 직장 생활에, 학과를 대표해 멘토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계시니……. 대체 잠은 언제 주무세요?

현미옥 | 아이, 왜들 이러세요. 오늘 땀을 좀 흘렸더니, 붓기가 빠졌나 봐요(웃음).

김병준 | 멘토님처럼 매사에 열정적인 분도 드물 거예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하는 대목이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투자하시는 에너지만 봐도 그렇고.

유정미 | 공감해요.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쪼개는 일, 쉽지 않잖아요. 한번은 제가 시험공부를 하던 중 의문사항이 생겨 실례를 무릅쓰고 새벽 1~2시쯤 문자를 넣었는데, 바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다음날 오전 중에만 답해주셔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장은주 |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당일,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술을 해야 했어요. 성적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멘토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간절하면 길은 생기기 마련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다 나던지. 덕분에 퇴원 후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김병준 | 와, 역시! 멘토님은 언제나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멘티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세요. 과연 4년 장학생답습니다.

현미옥 | 과찬이세요. 전부 멘티님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죠.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가 학교의 혜택을 많이 입었잖아요. 보답하고 싶었어요. 기왕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죠. 벌써 3년째네요.

이상열 | 멘토님은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첫 대면 자리 기억하세요? 행여 저희들이 불편하거나 어색해 할까봐 먼저 아는 체하시며 손 내밀어 주셨죠.

허승무 | OT 때였죠, 아마? 학과 구성원들 간에 진솔하고도 대담한 자기소개가 이루어지는 순서였는데, 멘토님은 한쪽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엿보았더니, 글썽 멘티들이 밝히는 개인사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어



현미옥(멘토) 허승무(멘티) 김병준(멘티) 이상열(멘티) 유정미(멘티) 장은주(멘티)

요. 그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목소리나 표정까지도.

현미옥 | 멘티분들 각각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멘토를 한다?’ 생각하면 제가 멘티분들 입장이어도 황당하고 썩 기분 좋진 않을 것 같았어요.

김병준 | 와, 그런 배려까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오래 오래 함께하기를

이상열 |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과목 선택이나 시험 대비를 홀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선후배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상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 해결해 주고 있는 듯해요. 다만, 멘토와 멘티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끔 지역별로 공부방이 개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은주 | 맞아요. 멘토링 제도가 더 활성화되려면 학교 측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멘토님이야 워낙 베테랑이지만, 듣기로는 자질이 부족한 멘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모범 멘토란 이런 것이다’라는 콘셉트로 매뉴얼을 구성하여 멘토들 교육에도 힘써 주시길 바래요.

현미옥 | 와,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멘티분들의 소견이 이렇게나 구체적인 줄이야! 앞으로 많은 발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유정미 | 아직 멘토님께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졸업 앞두고 계셔서 큰일이예요.

김병준 | 맞아요. 멘토님만큼 유능한 분도 없을 텐데.

현미옥 |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졸업을 미뤄야할까 봐요. 하하.

장은주 | 앓, 진심이세요?

현미옥 | 네,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설사 학교에 없다 해도, 멘티님들이 원하시는 한 저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멘토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염려 폭 놓으셔도 돼요.

허승무 | 멘토님이야말로 나눔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분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현미옥 |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해내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학습수기 우수자가 말하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

자신감과 꿈 키우는 내 삶의 필수 영양제 e-러닝 학습 완전 정복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다양한 공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은 책들이 서점에 가면 넘쳐나는 것도 사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도 어느 정도 제한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더욱 알찬 e-러닝학습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알찬 학습 노하우를 당신에게만 귀뜸한다.



작심삼일도 열번이면 한 달이다!

글 | 안진영 (멀티미디어지다인학과 11학번)

처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루에 2~3시간씩 강의를 듣기로 마음먹었던 계획은 일주일 만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출석만을 위해 강의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졸업증명서를 얻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떠올린 말이 바로 '작심삼일도 열번이면



한 달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계획표에 얽매이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01 강의를 듣기 전에는 꼭 교안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 놓고, 체크한 부분의 강의 내용을 유심히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학습정리는 더 꼼꼼하게 챙겨 듣고, 그날의 강의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02 색인을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뒤에는 그 주에 해당하는 내용의 타이틀과 소재목을 색인으로 만들어 몇 주차 몇 번째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오픈 북 형태의 시험이 많은 서울사이버대의 특징 상 답안을 작성할 때 아주 효과적이었지요. 많은 학우들이 교안을 찾아서 답안

을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시험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교안을 뒤척이는 시간은 의외로 길다고 느껴지는 제 경우엔 색인은 그야말로 훌륭한 답안 작성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03 시험 2주 전에는 2배속 강의로 복습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시 한 번 듣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직장인이자 가정주부인 저로서는 2배속 강의를 통해 복습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2배속 강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그럴 때는 mp3파일을 다운받아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복

습에 중점을 뒀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학습 노하우가 최선은 아닙니다. 선후배, 동기 나름의 생활방식과 시간에 맞는 학습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은 느리고 뒤처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닐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배움이 목말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문을 두드린 모든 학우들과 더 많은 배움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공부는 나 자신과의 약속

글 | 허 숙(노인복지학과 08학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 e-러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e-러닝학습의 자율적인 학습 시스템은 많은 학우들에게 유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학습에 대한 구속력이 그만큼 취약한 학습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공부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점이 서울사이버대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e-러닝 학습의 이런 장단점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01 구속력이 없는 e-러닝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과목별 편철목록 만들기였습니다. 공부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인데, 핵심적인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또 학습교안에는 없고 동영상에만 있는 문제와 학습정리는 교안 뒷장에 따로 작성해 프린트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언제나 주지시켜주세요.

02 mp3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 휴식시간에는 강의를 복습하는 걸 생활화했습니다. 교안과 동영상 강의

를 반복해서 듣는 습관이 길러지자 자연스럽게 계절 학기도 수강신청을 하게 됐고, 무언가 배우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학습 중독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지요. 공부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03 다양한 특강 듣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특강에 참여해 다른 학과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이는 타 교양 과목 선택을 하는데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중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특강은 '나의 삶의 색',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해 올해 '색채 디자인' 강의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애작 가는 교양과목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지요.

04 학기가 끝나면 교안을 제본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책꽂이에 정리해 둔 것도 특별하다면 특별한 제 공부 습관입니다. 학업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유일한 증거들이니까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따뜻한 격려를 마다하지 않은 주위 선배님들 때문입니다. 뜨거운 학우애가 함께하는 대학생활을 만끽하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자신감과 꿈을 키우는 우리 삶의 필수 영양제, e-러닝 학습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젠더연구소의 Anita Nyberg 교수 스웨덴의 일과 가족의 조화

지난 5월 23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니베리(Anita Nyberg) 교수를 모시고 초청 강연을 펼쳤다. 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초청 강연이었기 때문에 교수연구동이 북적이겠단 예상 그대로였다. 이번 초청 강연에서 휴먼서비스대학원과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부 학생들은 스웨덴의 가사 분담과 더불어 가족이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글 | 편집부



사실, 니베리 교수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한국-스웨덴 여성정책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미 서울사이버대 학생들과 만난 경험이 있다. 스웨덴의 성 평등, 공보육, 육아휴직 정책 등을 이야기했던 당시와도 연계되는 이번 초청 강연에서는 〈스웨덴의 일과 가족의 조화〉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의 핵심은 바로 양성평등. 의미 있었던 강연의 핵심만을 간추려보았다.

고용과 양육의 책임, 부모의 몫

스웨덴은 세계적으로도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다. 1950년대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왔는데, 논의가 시작된 당시만하더라도 스웨덴은 아버지는 ‘일’, 어머니는 ‘가족 내 양육담당’이란 인식이 강했다.



본격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60년대였다고 니베리 교수는 말한다. 자녀를 낳는 것과 수유, 세탁, 밥 짓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간에는 어떤 생물학적 관계도 없다는 인식이 스웨덴 전체에 조성되었다고. 이런 변화는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양성평등모델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새로운 양성평등모델은 ‘고용과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적 육아지원은 모성휴가에서 부모휴가로 전환되었으며,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누가 일을 할 것인지는 각각의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가족 양성평등 사회에 던져주는 느낌표

이후 스웨덴은 가족의 양성평등과 조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파트타임, 공공 육아지원, 부모수당,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가사 분담 책임을 근본적으로 나누지는 못했다고 한다. 1995년, 스웨덴의 ‘아버지의 달’ 제도 도입은 다시 한번 스웨덴의 양성평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남성이 무조건 한 달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녀교육에서 아버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양육과 가사 일에서 아버지의 가사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강의를 듣는 휴먼서비스대학원과 상담심리대학원 학생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다. 이날, 니베리 교수가 양성평등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자꾸만 높아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담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허물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대학원은 스톡홀름대학교와 교수 및 학생 상호 교환, 콘텐츠 공동제작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최초의 연극동아리 '무지개 예술단' 을 아시나요?

지난 5월에 있었던 'SCU Spring Festival'에서 서사대 최초의 연극동아리 '무지개 예술단' 이 화려하게 데뷔했다.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무지개 예술단' 은 이날 축제의 문화예술 공연에서 '효성스러운 호랑이' 라는 짧은 연극으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작품의 주제의식과 작품성, 완성도가 매우 높아 심사위원과 학우들의 박수와 관심을 한몸에 받은 '무지개 예술단' 을 만나보았다.

글 | 편집부

압구정에 위치한 노인복지연구소에서는 매주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바로 '무지개 예술단' 의 연습시간. 작년 11월에 발족한 '무지개 예술단' 은 매주 목요일 8시에 모여 약 3시간 동안 기타 연습과 연극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 학과경연과 타 학교 축제, 요양원 등 '무지개 예술단' 의 공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이 패기 넘치는 동아리는, 예술과 봉사를 접목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표적인 우수동아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예술성도 만점, 착한 마음도 만점!

“연기는 당연히 처음이죠. 봄 축제 공연 사흘 전에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무 떨려서. 집은 물론이고 동아리 모임 오가는 지하철에서도 무조건 연습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제가 실전에 강한가 봐요.”

지난 5월 서사대 축제에 올린 '효성스런 호랑이' 에서 '큰 호랑이' 연기로 극찬을 받은 백은희(노인복지학과 3학년) 학우의 소감이다. 그 외에도 소리꾼 역의 이승호(4학년), 나무꾼 정효정(4학년), 어머니 김화숙(3학년), 새끼호랑이1 양동일(4학년), 새끼호랑이2 김명순(2학년), 새끼호랑이3 박순임(1학년) 학우

를 포함한 15명의 '무지개 예술단' 스텝과 배우가 이번 공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지개 예술단' 은 노인복지학과 외에도 연극 지도를 맡고 있는 복지시설경영학과 이요한(4학년) 학우와 기타를 지도하는 김혁진 학우를 포함한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부동산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인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무지개 예술단' 의 1기를 이끌고 있는 백재근 단장(노인복지학과 회장)은 “회원 각자가 가정과 직장이 있어 오프라인 모임이 쉽지 않음에도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이버대학이지만 대학생활의 보람과 즐거움을 동아리를 통해 느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기반을 잘 닦아 범서사대 동아리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예술단 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은주(4학년) 학우는 소장으로 있는 복지연구소를 동아리 연습장소로 제공하며, “도움을 받은 학교와 총학에 감사합니다. 전 학년이 단결하여 뭔가를 준비하는 게 뿌듯합니다. 직장인과 주부임에도 노력한 학우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요양원 연극 봉사를 목표로 오늘도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무지개 예술단' 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무지개 예술단' 은 회원 전체의 예술적 소질개발과 전체 서사인의 화합을 목표로, 공연예술을 통한 봉사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2012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사업’ 선정으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신설

창의적 뉴미디어 기술 전문가의 새로운 요람



학과문의 02-944-5389 | <http://ncon.iscu.ac.kr>

IT·디자인학부에 신설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는 인터넷 보급, 신기술의 글로벌 표준 선점 등 향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뉴미디어콘텐츠 분야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개설됐다.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One Source Multi

Use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미디어·콘텐츠·방송·영상 분야의 잠재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미래 산업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최고의 미디어공학사 양성을 위한 최상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추진한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사업’은 교과부가 그동안 부처



이성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교수는 “전국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가 ‘2012년도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서사대는 전국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설치된 전문계학과(2,760개) 중 약 16.6%에 달하는 디자인·미디어·콘텐츠·영상·게임 분야의 잠재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뉴미디어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이들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됐다. 본교는 대학 특성화 전략으로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를 2013년도 신설한다.

글 | 편집부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중등직업교육 선진화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최근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급상승함에 따라 이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선취업-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그 가운데 서사대에 신설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는 이러한 사업적 특색과 목적에 맞는 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선정은 서사대의 사이버교육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 학과에서는 단순히 뉴미디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식 기반, 테크놀로지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뉴미디어 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뉴미디어 영상예술이 가지는 하이테크놀로지 접목 기술 습득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IMS Learning Impact Award’를 받은 교수학습시스템 ‘SCU Learning WAVE’, 최첨단 촬영 및 영상 장비 등이 설치된 12개의 자동화 스튜디오, 8개 지역캠퍼스를 기반으로 선취업-후진학 체제에 부합하도록 산-학-고교 연계 클러스터도 구축했다. 특히 현장실무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수업설계 시 역전학습모델 및 팀 경쟁학습모델 등 다양한 학습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각 캠퍼스별로 현장 전문가를 실습 교수로 위촉할 계획이다.

SCU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는 실무중심의 차별화 된 특화인력 양성으로, 향후 취업자의 직장 내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선취업-후진학 진로로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학진학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문화 산업시대를 리드하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첫 학과 운영

창의적 문화예술 산업 위한 새로운 출발



학과문의 02-944-5199 | <http://artmanage.iscu.ac.kr>

문화예술경영자는 예술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작 및 수용의 전 과정을 매개하고, 보다 많은 관객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서사대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문화의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 문화 예술 CEO, 제작자, 기획자를 양성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진흥과 창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경영학은 예술적 감성과 경영인의 마인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문화는 트렌드가 중요한 만큼, 이의신 학과장은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객 소통의
다리를 놓다!

올해 첫 학과 운영을 시작한 서사대 문화예술경영학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특성상 대부분의 관련 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집중해 있는 것

문화예술경영학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학문이 아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는 문화와 예술의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커피 한잔을 팔아도 문화를 알아야 하는 사회다. 대기업에서도 문화예술을 기업경영과 마케팅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사이버대 최초로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신설했다.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올해 첫 신입생을 맞았다.

글 | 편집부

에 반해, 사이버대만의 강점인 손쉬운 온라인 접근성으로 문화예술경영에 대한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경영에 대한 학문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은 물론, 지방의 공연장과 전국 주요 아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편입생들까지 모두 학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1학기를 마쳤지만, 학과는 이미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재학생의 교류가 활발하다.

문화예술경영학과는 사이버대의 특성상 재학생 대부분이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의신 학과장은 “국내에 문화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무렵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관련 분야에 근무해 온 분들이 많다. 우리 학과는 그분들이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거나, 실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커리큘럼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한다. 1, 2학년 때는 문화예술 공연을 바탕으로 작품 위주의 예술적 기초소양을 키우고, 고학년이 되면 문화예술경영의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 경영과 실무 위주의 강의를 듣게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신입학원 이세웅 이사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학과인 만큼 교수진 구성도 남다르다. 석좌교수에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과 국립발레단 최태지 단장을 포함,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9명의 교수진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생생한 트렌드와 창의적 교육 콘텐츠로 명품강의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예술경영학사를 취득하면 졸업 후 공연, 축제, 예술단체경영, 문화예술교육자, 지역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개인 창업을 통해 기획사 및 1인 창업, 프리랜서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과 기량을 연마할 수 있다. 



SCU & 서울특별시청

사람이 중심되는 시정 작은 변화 통해 희망의 내일 정착

서울시를 움직이는 핵심기관인 서울특별시청은 최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사람 중심의 서울’이란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제1도시를 운영하는 시청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자기계발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글 | 편집부

서울의 주인이 시민이듯, 서울을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 역시 시민이다. 서울시청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서울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화려한 기치보다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심장, 서울시청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도 거듭 이어지고 있다. 우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비롯해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5월 1일자로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영세 음식점 앞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전국 최초 골목형 소방차 개발 도입’ 등 시민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를 싹 틔운 100가지 ‘희망씨앗’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켜가면서 사람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직원의 능력개발 위한 다양한 혜택

‘사람 중심의 서울’ 정책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르는 파급 효과로 서울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지원은 직원 개인에게도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서울시에서는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내 대학교 학사 및 국내외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원격수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위해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등 12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전형료, 입학금 면제, 등록금 2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취득 학점과 성적에 따라 일정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약 70% 정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어학 능력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 외 직장 외국어강좌를 운영하고, 토익특별시험일 지정 운영, 사설어학원 학습비 및 어학점정 응시료 등을 지원하여 상시적인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계발 지원책들이 직원 개인의 자기발전을 돕는 일임과 동시에,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인적 자본(Human Resource)에 대한 투자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와 같은 선도적인 지원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Mini Interview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이버 교육지원으로 직원 복지와 행정효율 동시에 높인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서울시 직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재개발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사이버교육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교육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평생교육 시대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욕구는 커질 터. 때문에 그는 사이버대학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희망을 걸고 있다.

“직장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보조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실천하는 새로운 대학교육의 트렌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 직원들 또한 사이버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전한다.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일과 후나 주말시간을 통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2012년도의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에 약 200명 가량의 직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지켜보는 그는 직원들에 대한 따스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사회복지학, 컴퓨터정보통신학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문문집』, 『권학문』에 ‘소년이노학 난성, 일촌광음불가경(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늡기는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서울시 정책 및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HIBITION

2012 루브르박물관전 '신화와 전설' 올림포스의 신들이 한 자리에

'2012 루브르 박물관전'은 매력적인 그리스 신화를 테마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높이 2미터가 넘는 조각품들과 기원전 10세기경에 제작되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유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서양 문화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기획은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셔도 볼 수 없는 '테마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전시되고 있다. 직접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여 단순히 '시대별'로 배열되어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는 재미와 감동을 제공한다.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는 '신화'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구성된 환상적인 이야기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올림포스'와 더불어, 올림포스를 대표하는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 포세이돈 등 다양한 신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여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재미를 더해준다.



■ 기간: 2012. 6. 5 ~ 9. 30
■ 장소: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MUSICAL

맨 오브 라만차(Man of La Mancha, 2012) 소설 돈키호테의 화려한 부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재구성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다섯 번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2005년 뮤지컬 〈돈키호테〉로 초연된 뒤, 2007년, 2008년, 2010년에 걸쳐 재공연될 만큼 사랑받은 〈맨 오브 라만차〉는 공연 전, 제작발표회 하이라이트 영상과 뮤직비디오에 쏟아지는 팬들의 관심을 통해서도 작품의 흥행을 예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프리뷰 기간 좌석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কে도에 오른 〈맨 오브 라만차〉는 황정민, 서범석, 홍광호, 조정은, 이창용, 서영주 등 새롭게 참여한 배우들의 연기도 각종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조승우, 류정한, 정성화 등의 배우들이 연기했던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를 각자의 캐릭터 해석으로 연기하는 황정민, 서범석, 홍광호는 각각 '황동키', '서동키', '홍동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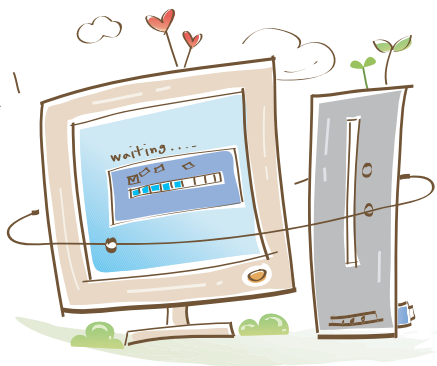


■ 기간: 2012. 6. 22 ~ 2012. 10. 7
■ 장소: 서울, 잠실 사롯데 씨어터

NETIQUETTE

컴퓨터 바이러스 기본 예방법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하라

네트워크를 통해 거침없이 침입하여 순식간에 시스템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무력하게 만들게 하고 파일을 못쓰게 만든다. 보안 침해로부터 공격 당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또한 생산성 상실, 손상된 데이터, 시스템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에 대한 방어가 철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미 바이러스 공격을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다른 장비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



바이러스 예방 10단계

- 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의 다운로드를 자제한다. (실행 또는 사용전 백신으로 검사 권장)
- ②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한다.
- ③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감시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보호한다.
- ④ E-mail에 첨부되어 온 파일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발신인, 본문내용과의 관계, 본인에게 꼭 필요한 파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백신으로 검사한 뒤 열어보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된다.)
- 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 ⑥ 정품 이외의 프로그램은 개발자(사)가 확실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⑦ 컴퓨터 바이러스 활동에 대한 달력 ·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 ⑧ 중요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한다.
- ⑨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복구 디스켓을 준비한다.
- ⑩ ROMBIOS 패스워드, 스크린세이버 패스워드 등을 사용하여 PC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침입을 감시한다.

숨은 그림 찾기

아름다운 바다 속에서 시작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인어공주의 여정... 하지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끝없는 도전정신과 모험심은 바로 우리 서사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래 그림 속에 담긴 숨은 그림을 찾아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을 추천하여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 2012 여름호 숨은 그림 찾기

방어리장갑, 갈매기, 오카리나, 우산, 부츠, 자



<그림 / 이유진, 김시원>

2012 봄호 숨은 그림 찾기 정답



모자, 빗자루, 야구방망이, 식칼, 바늘, 조개, 리본

■ 2012 봄호 당첨자 & 한마디

강미경: SCU e아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수기나 이야기 거리 등을 공모해서 서로 공감하는 내용들이 다 수 게재되었으면 합니다

홍라자: 졸업생임에도 소식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취미생활 겸 공부할 수 있는 학과를 소개를 해주시면 합니다.

김미경: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도 더욱 알고 싶네요^^.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어느 기관들과 연계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럼 학교 인지도도 높아지고 자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현정: 정보 중심의 기사가 많아 딱딱한 느낌입니다. 잡지처럼 흥미를 당길 수 있는 내용과 편집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과별 장학생 공부비법도 취재해서 실어주세요

성낙형: 노인문제, 사회적기업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이준영: 무엇보다 온라인의 단점을 극복해 학우들의 공감대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분들의 사회 소식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BOOK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 추천 경제학 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할 것을 미리 알고 돈을 뺄 수 있었던 사람이 0.1퍼센트였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급정지로 들어가기 전에 돈을 빼내었다. 0.1퍼센트를 위한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다. 예측 능력 없는 주류 경제학은 과학적으로 유용하지 않을뿐더러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정의롭지 않다. 그런 경제학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목소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는 트렌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수학자 버전의 경제학 반성이 등장했다. 저자 데이비드 오렐은 시스템 생물학 분야에서 일하는 수학자의 관점에서 신고전파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이 신화처럼 떠돌고 있는 10가지 가설의 오류를 낱알이 파헤친다.

■ 데이비드 오렐 (Orrell, David, Ph.D.) 지음, 김원기 옮김, 행성B웨이브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 추천 철학자의 디자인 공부

오늘날 디자인을 잘 하는 기업(애플)과 디자인이 발달한 나라(스칸디나비아 국가들)가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공공성에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 책은 놀랍게도,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분야에 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을 시도한 첫 번째 체계적인 시도이다. 또한 고찰을 하느라 독자의 긴 인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디자인 사례를 나열하느라 카탈로그처럼 된 디자인 책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짧은 분량 속에 디자인의 개념과 윤리 같은 기본적 문제부터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미래 혁신과 같은 쟁점까지 속 시원히 다루고 있다.

■ 스테판 비알 (Stephane Vial) 지음, 이소영 옮김, 홍시



SCU COLLEGE SYSTEM SCU 200% 활용하기 시리즈 ①

각종 안내 활용하기

우리 SCU 학우님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학우님들을 위해 이번 호부터는 SCU의 생활을 보다 알차고 의미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줄 작지만 효과적인 Tip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 | 남상규 교무부처장

학사제도 해설



- 우리 대학 학사제도 및 운영에 관하여 중요 정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수강신청, 등록, 출석 및 수강, 시험 및 평가, 성적, 휴복학 등
- 위치 : 대학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제도 해설

대학요람



-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을 책으로 묶어 매년 신입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e-book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학 소개, 학과별 교육과정, 학사제도, 대학생활 안내 및 주요 규정 등
- 위치 : 대학홈페이지→학사안내→e-대학요람

포털 사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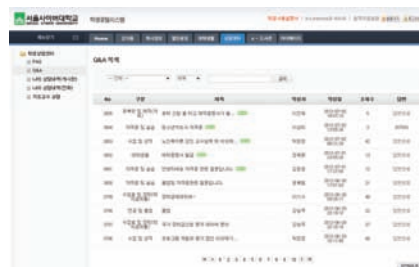
- 학생의 포털 사용 안내서를 책으로 묶어 pdf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의동, 학사정보시스템, 열린광장, 대학생활, 상담센터, 마이페이지 등
- 위치 : 학생 포털 메인페이지→우측 상단의 학생사용설명서 클릭→stu_manual.pdf 열기 (또는 저장)

원격지원



- 강의 수강 및 대학 홈페이지 이용 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생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그 원인이 개인 컴퓨터의 문제인지, 인터넷 회선 문제인지, 서버나 소프트웨어의 오류인지 파악하고 간단한 문제는 즉각 해결해드리는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의 수강, 학생포털 이용 등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는 서비스
- 위치 : 학생 포털 메인페이지→우측 상단의 원격지원요청 클릭→원격지원서비스(채팅)

상담센터



- 대학생활에 대한 학생의 문의나 건의사항은 학생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고 24시간 내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의동, 학사정보시스템, 열린광장, 대학생활, 상담센터, 마이페이지 등
- 위치 : 학생 포털 메인페이지→상담센터→Q&A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Help Desk)
02-944-5000

- 학생이 전화를 통해 직접 안내를 원하는 경우에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에 실시간 안내 서비스
- 위치 : 주간/학생지원팀 야간 및 공휴일/당직자

모바일캠퍼스

- 자체 개발한 모바일 웹을 통해 공지사항, 학사 정보, 수업정보, 재학생광장, 강의수강 및 입학 안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웹 서비스 주요 내용
- 위치 : <http://m.iscu.ac.kr>

사용자	내용
일반인	대학 소개, 모바일 강의맛보기, 전화번호 안내, 학사공지, 일반공지, 보도자료, 입학상담, 학과교수상담, 입학지원, 대학원 소개 등
재학생	수강신청현황, 이수성적조회, 졸업요건충족 현황, 과제현황, 토론현황, 설문현황, 팀프로젝트현황, 출석현황, 정기시험현황 등

우리 대학은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정보를 홈페이지 메뉴, 책자, 원격지원 서비스, 상담센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 변경 시 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대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2 뿌쉬긴 페스티벌 기념 연주회 성황



허요연 부총장, 뿌쉬긴 페스티벌을 위해 방문한 러시아부대사와 대사관직원, 뿌쉬긴하우스 원장 김선명, 이세웅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교 등이 후원하고 뿌쉬긴 하우스와 주한러시아대사관, 러시아연방 CIS재외협력청이 주최한 "2012 뿌쉬긴 페스티벌"의 '루스 까야 두샤' 연주회가 지난 6월 9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뿌쉬긴 청소년오케스트라와 러시아 성악가들이 출연한 이번 공연은 '한국과 러시아 문화교류의 한마당'을 주제로 열린 '뿌쉬긴 페스티벌' 일정의 하나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특별한 러시아 예술문화를 선사했다.

뿌쉬긴의 생일을 기해 공식 제정된 "러시아어의 날"을 기념하여 2011년부터 매년 6월 개최되는 "뿌쉬긴 페스티벌"은 러시아의 문화예술과 러시아어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널리 알리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장학 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협약식 후 단체사진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6월 26일 공익근무요원 장학 혜택 협약식을 가졌다.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이번 협약은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학생에 비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사이버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어, 공익 근무를 하면서 학사학위는 물론 국가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서울사이버대학과 협약을 통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약 11,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0년 장기근속 교직원 공로패 수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 총무처 김성철 팀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스승의 날인 5월 15일(화) 학교법인 신일학원(신일중·고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개교 46주년을 맞이하여, 개교기념식 및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10년 이상 봉직하면서 학교발전과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

UN-APCICT와 파트너십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5월 31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United Nations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원장 이현숙)과 아세안 사이버 대학교에 온라인 교육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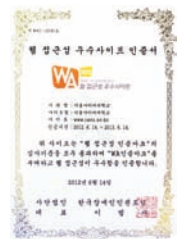
APCICT·서울사이버대학교 파트너십 체결식 Signing Ceremony for Partnership Arrangement



그램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UN-APCICT의 정보통신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아세안 국가의 대학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아세안사이버대학교는 아세안(ASEAN,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대학교로 지난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됨에 따라 교과부의 지원으로 2015년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아세안 4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 1차적으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런칭할 계획이다.

사이버대학 최초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홈페이지(www.iscu.ac.kr)가 20여개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2012년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 'WA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웹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권포럼(대표 이범재)의 인증심사 제도를 통과하면 받게 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올 3월부터 일반사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고령자들도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지침에 따른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WA인증마크'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이탈주민 건강가족의 조건과 과제'

학술대회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소장 채정민,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7월 5일 본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학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기반이 되는 가족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 건강가족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하여, 제1부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이해', 제2부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방안', 제3부 종합 토론 형식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SCU Spring Festival’ 기간 중 오픈캠퍼스투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5월 19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오픈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2012 SCU Spring Festival’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캠퍼스 투어는 사이버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이버대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다른 사이버대를 비교하였다. 참가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소개 및 입

학, 학습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대학의 최첨단 시설과 콘텐츠 제작 현장 견학,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개인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임교수와의 1대1 맞춤 진학상담과 심리상담센터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이번 캠퍼스투어와 함께 열린 ‘2012 SCU Spring Festival’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문화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경매’ 과정 무료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부동산 경매 교육의 권위자를 초청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교육과정인 ‘부동산 경매 손자병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동문에게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동산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은 6월 2일부터 시작하여 7월 21일까지 총 8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교 캠퍼스 4층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진행됐다. 교수진 또한 박종성 교수, 이영삼 교수 등 부동산경매 교육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한편 부동산 경매 무료 과정과 함께 서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전임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무료 공인중개사 과정도 진행된다.

SCU COOL 행복충전 1박2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재학생을 위한 ‘SCU COOL 행복충전 1박2일’ 행사를 개최한다. 최근 본교는 교수연구동의 완공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이러닝 스튜디오를 구축함으로써 최고의 단독 사이버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최첨단 시

설과 콘텐츠 제작 현장을 견학하게 되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WICKED’ 공연, 저녁만찬 및 교수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2012학년도 베스트 동아리(Club) 선발 안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학문탐구 및 학습정보에 도움주기 위해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12학년도 베스트 동아리(Club)를 선발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ISCU 클럽’ 활동 동아리(Club)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선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외에 2012학년도 1학기 활동보고서 및 2학기 사업보고서 등 일정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스티브 김’ 석좌교수, 충남 온양고 초청 강연

충남 아산시 온양고등학교는(교장 안성준) 5월 7일 웅비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인 스티브 김을 초청해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공개 강연을 가졌다. 온양고 진로 진학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교생 1,327명과 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시대의 성공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스티브 김은 한국과 미국의 교육문화에 대해 미국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것이 ‘학원’이라며 사교육 문제와 학생들의 창의성 결여에 대해 언급했고,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열정과 자신감, 호감도, 소통의 기술 등 7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8회 하계해외문화 역사탐방



제8회 하계해외문화 역사탐방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 소주, 항주 등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중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찾아’란 테마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의 유구한 역사 및 문화 현장을 탐방, 체험 학습함으로써 넓은 견문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제적인 시각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춘,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서사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학대 현황 발표한 권금주 교수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는 6월 15일 열린 제7회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기념식에서 ‘2011 노인 학대 현황 보고’를 발표하며 “노인 학대를 단순히 학대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1년간 전국 24곳 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전화 1577-1389)에서 처리한 노인학대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것이다. 권 교수는 중앙노노의 중앙사례관리위원을 맡고 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가하는 ‘신체적·경제적·정서적·성적학대, 방임·유기 등의 행위’로, 가해자는 배우자·자녀·요양보호사 등 다양하다.

교수 동 정

■ 김요완 교수, 성폭력 청소년 관련 논문 게재 및 심포지엄 발표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는, 4월 30일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가족체계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상담과 법』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사)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심포지엄 발표가 있었다.

■ 김윤나 교수, 논문 게재 및 『청소년복지론』 출간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법과인권교육협회가 4월 30일 발간한 학회지에 '인권관점에 기반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재조명',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에서 5월 30일 출간한 학회지에 '청소년정책참여 활동의 특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지난 3월 5일에는 『청소년복지론』(신정출판사)을 출간하였다.

■ 김지연 교수, 게임설타운제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3월 30일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게임설타운제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인식과 자녀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위한 사회문화적 개입 전략'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 환 교수, 자의식과 정신건강 관련 논문 게재



자의식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는, 5월 31일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역기능적 자기초점 속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권금주 교수, 『가족정책론』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의 『가족정책론』(교문사)이 2012년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이해를 도운 교재다. 가족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독자를 대상으로 가족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심선경 교수, 온라인 수업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학과 심선경 교수는, 한국콘텐츠학회에서 3월에 출간한 학회지에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구도와 학습성취, 학습만족간의 관계 연구'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성태 교수, 작품 전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Korean Society of Design Trend의 주최로 5월 21부터 5월 26일까지 개최된 KSDT Internation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2012와,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의 주최로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된 2012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 이자영 교수,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에서 4월에 출간한 학회지에 'Factorial Invariance and Latent Mean Differences for the Five Factor Wellness Inventory With Korean and American Counselors'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향아 교수, 작품 전시



(사)한국콘텐츠학회에서 개최한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May 25-28, 2012)과 (사)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서 개최한 2012KSDT 국제디자인초대전(May 21-26, 2012)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임태순 교수, 『국제금융』 출간과 논문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7월 5일 저서 『국제금융』(한국학술정보)을 출간하였고, 한국로고스경영학회의 학회지에 논문 『부자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 최혜라 교수, 총동성과 강박성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최혜라 교수는, 3월 25일 한국심리학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총동성과 강박성: 개념, 관계 및 임상적 함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홍선관 교수, 『개발사업 로드맵』 출간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는, 4월 23일 『개발사업 로드맵』(중앙일보)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 가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제시했다.

캠퍼스, 모집정원, 콘텐츠 등 명실상부 '국내 최대'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는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재학생 만족도가 높고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뛰어난 교육 인프라로 유명하다. 사이버대 최대 규모인 26,000㎡의 최첨단 단독 캠퍼스를 조성해 학습공간을 전폭 지원하며 경기,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충남 등 전국 8곳에 지역캠퍼스를 갖추고 있다.

글 | 편집부



사이버대 최대 규모인 26,000㎡의 최첨단 단독 캠퍼스 전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콘텐츠와 이러닝 시스템 개발에만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 방식으로 학구열을 북돋아주고 있다. 국내 최초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인 'WAVE'는 세계적 이러닝 국제대회인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 수상으로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았으며 국내 특허도 취득했다. 또, 작년 12월 28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한-아세안 사이버대학'의 주관대학으로 단독 선정되어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대 최대 규모인 방송국 수준의 대형 스튜디오

전담교수제도 등 맞춤형 서비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 150명당 1명의 전임교수로 최고의 교수 확보율을 자랑한다. 온라인 학습이 익숙하지 않은 신

입생을 위해 '전담교수제도', '멘토링 제도' 등의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장년층을 위해 'e노후생애설계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과 동시에 3개월간 무료 영어회화, OS 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고, 졸업생들이 정규 교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동문 재교육 프로그램(SCU Reeducation Program)도 운영한다. 서울사이버대의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재등록률로 이어져 3년 연속 학생 재등록률(직전 학기 수료학생이 해당 학기에 등록한 비율)이 90%를 상회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장학제도, 재학생 50% 이상 수혜

국립대의 2분의 1, 사립대의 3분의 1 정도의 등록금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인기있는 이유다. 게다가 연간 53억 규모(2011학년도 기준)의 장학금으로 재학생 50% 이상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다. 직장인, 주부, 개인사업자, 전문대 졸업자, 농어촌 거주자는 1년간 20% 학비감면, 직업군인은 수업료 50% 감면 그리고 공인의 국어시험 성적 우수자는 수업료 50% 감면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대폭 늘려 남한 정착기간 5년 이상의 경우에도 50%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24(화)~8월 10일(금)까지 하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했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apply.isc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학문의 02-944-5000) 